

성접대 의혹 양현석 비공개 소환... '판도라 상자' 열릴까

광수대, 의혹 관련 사실 관계 조사
관련자 의혹 부인... 수사 난항 예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이 2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양현석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양현석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앞서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과 클럽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MBC '스트레이트'는 "양현석이 당시 일명 '정마담'으로 불리는 A씨를 통해 유혹업소 종업원 10여 명을 해당 자리에 동원했다"면서 "이 자리에는 양현석을 비롯해 가수 사이, YG 자회사 김모 대표, 남양유업 창업주 외 손녀 황하나 씨 등이 동석했다"고 보도하며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양현석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5년 전 있었던 일을 드러낼 만한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16일 사이를 불러 조사했고 그에 앞서 A씨 등 유혹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사이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며 성 접대 의혹 연루설을 부인했다. 양현석도 의혹이 제기된 직후 YG를 통해 "지인 초대로 자리에 참석했을 뿐 접대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양현석

연예

11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태양의 계절'로 4년 만에 안방극장... 연기하는 대표님 김지완

“주인공 욕심? 난 생계형 배우”

“악역에 분량도 적지만 긍정적 자극 촬영 끝나면 '성현아 대표'로 변신 연극으로 인연... 연기자 복귀 도와”

연기자 김지완(45)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다. 연기자 성현아의 매니지먼트 대표다. 2017년 연극 '사랑에 스킨다'에 함께 출연하며 맺은 인연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당시 그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주변의 우려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여유가 없었지만 성현아의 '연기자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다. 성현아를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안타까움에 '동업자 정신'으로 손을 내밀었다. 서로 다시 한번 힘을 내 마음껏 연기활동을 벌여보자는 데 마음이 통했다. 19일 서울 충정로 스포츠동아 편집국에서 만난 김지완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다”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 주면서 각자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김지완이 먼저 나섰다. 24일 KBS 2TV 일일드라마 '태양의 계절'에 합류했다. 올해 3월 SBS 드라마 '빅이슈'를 '맛보기'로, 2015년 KBS 1TV 일일극 '당신만이 내사랑'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극중 재벌가 회장(최정우)에게 절대 충성하는 부하 직원 역이자 악역이다. 분량이 많지 않지만 “어렵게 받은 기회”인 만큼 새 출발의 의지가 가득하다.

성현아

“저는 다른 의미의 '생활 연기자'이다. 생계를 위해 연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을 바라는 시기는 한참 지났다.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해내고 싶다. 세트 촬영이 오랜만이라서 데뷔 시절처럼 낯설고 겁나더라.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의욕을 높이는 긍정적 방향으로 날 자극하고 있다.”

김지완은 드라마 일정이 끝나는 순간에는 '성현아의 매니지먼트 대표'로 활동한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성현아가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소속 연기자들 위해 직접 발품을 파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확정된 출연이 막판에 어그러지는 일을 종종 경험하면서 허탈함과 속상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는 “이럴 때마다 방송사의 벽이 아직까지 높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며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책임감도 엄청 크고 미안하다”고 했다. 더욱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역시 전혀 없다. “성현아에게 연기가 제 몫”이라고 확신하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성현아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에도 주변에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무슨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웃음)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 현재로서는 성현아가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야 성현아도 부담을 덜고 서로 편히 연기에만 집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대표가 아닌 친구이자 동료의 마음으로 함께 헤쳐 나가겠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사진제공 | 매니지먼트 마당

조연급 출연 빌미로 금전 요구... 배역은 고작 '지나가는 행인'

아역 캐스팅의 이면 중

월 30만원에 '소속' 변칙 계약
B급 정보에 비중 없는 배역뿐
기획사의 금전 요구 경계해야

아역 연기자 지망생과 관련 일부 기획사 사이에는 '소속'으로 불리는 독특한 계약 방식이 있다. 이는 일반 연예기획사가 말하는 전속계약과는 다르다. 기획사측은 이를 두고 “다른 에이전시 일도 하면서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획사에 '소속비'를 낸 아역 지망생 부모들은 “허황된 변칙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 '월 30만원으로 출연에 오디션까지?'

작년 말 아역 연기자 지망생의 어머니 A씨는 아역 에이전시인 B기획사로부터 '소속' 제안을 받았다. “매달 30만 원의 소속비를 내면 드라마 출연 기회와 각종 오디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말에 A씨는 아이를 소속으로 등록시켰다. 하지만 B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적어도 조연급 이상”이라던 드라마 배역은 ‘지나가는 행인’역에 그쳤다. 오디션 정보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불과했다. A씨는 “한참 후에야 속았다는 생

각이 들어 등록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흔하디 흔한 활동을 해 별다른 의심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아역 지망생 어머니 C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아이들 6~7군데 기획사에 소속 신분으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봤다”면서도 “‘문어발 소속’의 효과를 본 부모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많게는 200만 원의 소속비를 쓰고도 기획사 중 단 한 곳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 '출연 빌미로 돈 요구? 불법!'

아역 지망생 부모들은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절실한 까닭에 일부 기획사의 '소속' 제안에 쉽게 흔들린다. 아역 연기자간 소환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유명 아역 연기자들이 우선적으로 캐스팅돼 작업 배역도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획사들은 좀처럼 작품 활동 기회를 잡기 힘든 지망생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소속비를 받았다. A씨도 “출연 기회와 오디

션 정보를 준다 하니 월 30만 원이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연예계는 무조건 돈을 내야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편견도 부모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교육비나 전속 계약비 명목으로 돈을 쟁긴 일부 기획사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캐스팅이나 오디션 정보 등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일부 기획사의 행태는 불법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도입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형 기획사’의 난립도 심각하다. 매니지먼트 역할과 연기 지도를 동시에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속비 문화’가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획사들의 영업 방식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전국출연자노동조합 배윤환 사무국장은 “드라마 출연이나 트레이닝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곳은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 같은 계약 조건을 내건 기획사나 에이전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BTS, 한국 최다 음반 판매량 신기록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다 음반 판매량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에는 2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가 339만9302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5년 가수 김건모가 세운 3집 '잘못된 만남'의 330만 장을 넘어선 것이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도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케이팝 뮤직비디오(유튜브 조회수 7460만 뷰)로 꼽혔다.

김선아, 산불 피해 주민 위생용품 지원



김선아

배우 김선아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과 저소득층·다문화 청소년 등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김선아는 최근 소속사 공피플의 사회 공헌 기부 캠페인 '세븐틴 캠페인'을 통해 한 생리대 브랜드 광고모델로 나섰다. 그는 '세상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인공인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자'는 취지에 공감해 위생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빌스택스, 전 부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수 빌스택스(신동열·39)가 전 부인이자 연기자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빌스택스의 소속사 측은 26일 “두 사람은 2013년 협의 이혼했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면서 “매달 9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고소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환희는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투투 황혜영, 채널A '아빠본색' 출연



황혜영

혼성그룹 투투 출신 방송인 황혜영이 가족과 함께 26일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빠 본색'에 출연했다. 황혜영은 그동안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남편, 쌍둥이 아들과 함께 방송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남편 김경록 씨는 방송에서 “3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만났으니 헤어지면 더 힘들 수 있다”며 “결혼 전 동거를 제안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